

보도시점 : 2026. 9. 10.(목) 11:00 이후(9. 11.(금) 조간) / 배포 : 2026. 9. 10.(목)

관광·공공의료 등 지역 맞춤형 UAM 서비스 상용화 본격화

- 지역시범사업 공모에서 공공의료 및 한강 관광 연계 서울의 복합형 모델 선정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윤덕)는 지역 수요에 기반한 도심항공교통(UAM) 초기 상용화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「2026년 도심항공교통 지역시범사업 지원 공모」의 최종사업 대상지로 서울특별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.
- 이번 공모에는 서울, 경기, 부산, 울산, 충북 등 5개 광역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, 전문가 평가를 통해 비행환경과 인프라 활용성, 서비스 수요 및 공공서비스 연계성 등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.
- 서울특별시는 공공의료와 한강 관광을 연계한 복합형 UAM 서비스 모델을 제안했다.

< 서울시 UAM 서비스모델(안) >



- 김포공항과 한강변 의료기관을 연계해 응급 의약품, 이식용 장기 등의 신속한 수송을 지원하는 공공의료 서비스와 함께, 한강 주요 거점을 연결해 관광객이 주요 경관을 공중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광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서울특별시에 최대 10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1:1로 매칭해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초기 상용화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.
 - 지원금은 버티포트 입지, 건축계획, 운항노선 및 항로 분석, 전파·통신 환경 평가 등 실제 UAM 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활용된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제주와 대구·경북을 예산지원형 지역으로 선정해 올해 사업계획 수립과 버티포트 설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, 지역별 특성에 맞는 UAM 서비스 발굴을 단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.
-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027년 UAM 신규 예산으로 기체 도입 150억원과 항로 설계,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 200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해 실증·상용화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.
 - 기체 도입비는 실증·상용화 시범사업에 활용하고, 인프라 구축비는 지방 정부와 1:1 매칭해 총 4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.
 -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갖춘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.
-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“지역의 수요와 특성에 맞는 다양한 UAM 서비스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기훈 (044-201-4197)
		담당자	사무관	류윤하 (044-201-4306)